

화학공학회 학술대회 4월19일 개최

한국화학공학회 2007년 봄 총회 및 학술대회가 4월 19-20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개최된다.

<산업화를 지향하는 화학공학> 주제로 개최되는 봄 학술대회에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 특히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주제 9개를 선택해 총 29개의 초청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5개의 특별 심포지엄과 총 36개의 초청 주제발표가 있을 4개의 부문위원회 공동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아울러 약 900편의 논문이 구두(59개)와 포스터(약 829개)로 발표될 예정이며, 공학교육 인증 토론회 주제 발표 2건과 심포지엄 그리고 연구주제 발표를 합해 약 950여건의 발표가 있다.

첫번째 특별 심포지엄은 <공정기술 성장 동력화>를 주제로 우리나라가 미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동력산업에 공정기술이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해 분야별 공정개발의 현황과 대응을 주제로 산업자원부 지원정책실장 고정식 박사, SK 박상훈 부사장, 삼성엔지니어링 CTO 이석호 박사 등이 주제를 발표한다.

두번째 특별 심포지엄은 <화학제품 디자인>을 주제로 Cambridge 대학의 G.D. Moggridge 교수 등 5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세번째 특별 심포지엄은 <환경규제 동향과 대응 심포지엄>으로 국제 화학물질 규제와 기후협약동향 그리고 공단폐수의 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규제 대책을 주제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미애 박사 등 6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또 <화학공정의 오늘과 내일> 심포지엄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공정의 변천과정과 기술개발의 현재 그리고 산업동향의 미래예측으로 석유화학산업의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제시하며 C.A. Cabrera UOP 회장을 비롯해 Kellogg Brown & Root의 Technical Advisor Yorklin Yang 박사, 그리고 전 Basell 기술부문 사장 Paolo Galli 박사 등 4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학술대회 참가비는 일반 7만원, 학생 3만5000원이다.

<화학저널 2007/04/04>